

왜 일본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없는 것일까

- 일본은 유독 노벨경제학상에서만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학 연구의 중심이 미국인 연구자들 간의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데 있음
- 인류에의 다대한 공헌이라는 노벨의 유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경제학상 폐지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일본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 201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미국 하바드대학의 앨빈 로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캠퍼스(UCLA) 로비드 샤프리 교수로 결정
 - 일본은 노벨상 중 유일하게 경제학상에서만은 아직까지 수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관련하여 일본경제신문은 다음과 같이 분석
- 가장 큰 이유는 경제학 연구의 중심이 미국에 있다는 점으로 1969년 시작된 경제학상이 2011년까지 69명의 수상자의 대부분이 미국·유럽 출신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수상자가 태반임
 - 1998년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씨는 인도 출신이나 하버드대학에 오랫동안 재직, 미국 경제학회에서 활약한 인물

- 동경대학의 후쿠다 신이치(福田 愼一)교수는 「왜 일본인이 수상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보다도 왜 미국인이 수상하기 쉬운가 라는 질문이 실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고 지적

□ 연구자들의 커뮤니티 형성

- 미국의 연구자들이 경제이론을 구축할 때 활용하는 것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거의 전부임
 - 미국 이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국 학회에서 주목받기 어렵고, 일본의 대학에 적을 둔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본 내에서의 논의에 그치기 쉽기 때문임
 - 「잃어버린 20년」을 거쳐 일본경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각해보더라도 일본인 수상자의 장애물은 한층 높다는 것임
- 선정기준의 하나인 논문의 인용건수에 있어서도 미국 중심의 구조가 현저함. 일본인 가운데도 미국의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학자가 있기는 하나, 좀처럼 미국의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후쿠다 교수에 의하면, 미국인 연구자들은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상호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는 것임
 -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은 그러한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음

- 일본인 연구자의 연구테마가 전반적으로 작은 알맹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상의 싹을 꺾는 측면도 있음
- 2000년 이후 수상자에 국한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비즈니스사이클(Real Business Cycle) 이론 등 신 분야를 개척한 학자가 수상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대학원에서 연구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게임이론. 모델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만으로 논문을 쓰기 쉽다는 것이 그 이유임
-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기존 게임이론의 틀을 넘는 발상이 얻어지기 어려움

□ 경제학상 폐지론도

- 일본의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자들
- 오랫동안 일본인 최초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 된 인물이 바로 동경대 명예교수로 전 시카고대학 교수를 역임한 우자와 히로후미(宇澤 弘文)씨임.
- 경제학에 수학을 도입한 방법론의 선구자로 동학적인 수리경제학 체계를 확립했으며, 1987년 수상한 로버트 소로씨의 성장이론은 1개 부문의 모델
- 이와 비교하여 우자와씨의 성장모델은 2개 부문이 대상이며 수상기회는 있다고 예상되어 왔으나 결국 수상하지 못함
- 현 시점에서 유력시 되는 인물은 미국 프린스턴대학 키요타키 노부히로(清龍信宏) 교수임

-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에 중점을 둔 신고전파의 미시경제학에 논의의 기초를 두고, 케인즈적인 거시동학을 전개하는, 소위 뉴케인지언의 한 사람임
- 경제에 적은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을 통하여 큰 경제변동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준 「키요타키무어·모델(1997)」 등의 논문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2008년 리먼쇼크 이후 특히 논문의 인용건수가 증가함.

성명	경력	주요 업적
모리시마미찌오(森嶋通夫)	전 런던 대학 교수	왈라스, 마르크스 등의 이론을 정식화
우자와히로후미(宇澤弘文)	동경대학 명예교수	2부문간 성장모델, 의사결정 이론, 불균형동학
아오키마사히코(青木昌彦)	스탠포드 대학 명예교수	비교제도 분석, 기업통치론, 일본경제론
아메미야타케시(雨宮健)	스탠포드 대학 명예교수	맥파든, 헤크만(2000년 수상)의 가계소비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기초이론
후지타마사히사(藤田昌久)	경제산업연구소 소장	도시경제학, 지역경제학, 공간경제학
키요타키노부히로(清龍信宏)	프리스턴 대학 교수	독점적경쟁 이론, 화폐이론, 신용공여를 통한 거시변동 이론

- 노벨경제학상은 알프레드 노벨 자신이 직접 설립하여 유증한 상이 아니며, 일부 폐지론도 부상하고 있음
- 금융파생상품 거래의 새로운 수법개발에 기여하고 파탄한 투자펀드의 운영과 관련된 수상자의 예를 들 필요까지는 없으나, 경제학상은 「전 인류에 다대한 공헌」이라는 노벨의 유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음

- 수도권대학동경의 와키타 시게루(脇田成) 교수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일본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류의 경제학 체계를 무리하게 세울 의미는 별로 없다」고 강조
- 정론이기는 하나 노벨상이 일본의 경제학자로서도 탐낼만한 것은 사실임. 일본인이 수상하는 경우, 일본경제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져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시사점

- 일본은 일본형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론화 작업 등, 그동안 여러 일본경제 분야에 걸쳐 실증, 이론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못내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경제학 연구의 중심이 미국에 있는데다 미국 연구자들 간의 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있기 때문일지도 모름
-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한국형 경제시스템이나 경제현상에 관한 이론화 작업은 적은 편임. 새로운 경제 분야에 관한 획기적인 경제이론을 개발해내면 몰라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외연적 확장을 향한 이론화 작업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됨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2.10.21)